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어려운 이웃 냉방용품 지원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는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 사업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적상면 초리, 종리, 과목, 내창마을의 어려운 이웃 76가구를 선정해 직접 조립부터 가구별 방문 전달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냉방용품 지원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소장 안해연)의 노사 및 협력사 협동으로 진행되었으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에서도 봉사에 참여하여 3회에 걸쳐 20명의 봉사자들이 조립 및 전달했다. 냉방용품 지원사업은 시작지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여 하계 폭염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고 또한 나눔과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기업이 공생하여 행복한 무주민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안해연 소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추구와 발전소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소외 계층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장에인복지관, 이용인 맞춤형 인권 교육 실시

정읍시장에인복지관이 1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일상 속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교육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복지관 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인권이다를 주제로 강의를 나서 인권 개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제 인권침해 사례,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참여자들은 강사의 설명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인권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표현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김제농협, 보훈 자녀 직원 격려 행사 개최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본점 및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훈 자녀 직원들을 초청해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보훈 자녀 직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했다. 행사에서는 김제농협의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훈 가족의 의미와 호국보훈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보훈 자녀 직원들에 대한 조합의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제=곽도태 기자



부안소방서, 119소방 동요대회 부안동초 연습 매진

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에서는 제23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부안소방서 대표로 부안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경연대회는 오는 13일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전북 도내 각 소방서를 대표하는 팀들이 참가한다. 부안동초 26명의 학생들은 소방동요 제4집에 수록된 '산타 소방관 아저씨'를 창작 율동과 함께 선보일 예정으로 학생들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연습에 매진하며, 동요가 사수 안전의 의미를 익히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골목상권 지키는건 함께 해야 가능”

박춘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조합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조합원과 직원들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즈음 너무 불경기라 조합원 분들에게서는 하루하루가 생사의 기로입니다. 내일이면 문 닫을 것 같다 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주시와 전복도에서 여러 지원책이 나오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말뿐인 지원에 상인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일 겁니다.” 박춘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난 2일 조합 이사장실에서 만났다. 그는 조합 취임 1년 반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듣고 느끼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절감해 왔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저도 삼천동 ‘중인미트’라는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 열고 청소를 마치고 나서 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는 게 일상이다. 하지만 힘든 건 저뿐만이 아니다. 우리 조합 직원들이 정말 헌신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은 30명이 넘는데, 명절도 휴일도 없이 일한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일이니까 라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사장으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다. 박 이사장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바로 조합원뿐 아니라 직원들이다. 그는 “우리는 주류 2%, 공산품 4~5%라는 극히 낮은 마진 구조에서 운영된다. 직원 월급도 뼈대한 상황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런 직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다. 이 같은 헌신과 노력이 지난해 전국 48개 조합 중 매출과 물류센터 운영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박 이사장은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 조합이 전국 1위라는 건, 조합원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버텼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박 이사장의 꿈은 ‘물류센터 신축’이다. 현재 700평 규모의 물류센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박 이사장은 “익산이나 군산 조합들은 1,500평 규모인 데 우리만 뒤처져 있으면 안된다. 물류센터가 확장되면 조합원들에게 더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식당 등 외식업체에도 더 좋은 가격으로 식자재



를 공급해 지역 상권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약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 약 10억 원 이상의 자부담금 마련이라는 무거운 짐이 박 이사장의 어깨에 놓여 있다. 그는 “밤낮으로 재원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개인적인 안위보다 조합과 조합원은 물론 30여 명 직원들의 생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직원들의 이름 대신 ‘우리 직원들’이라 부르며, 그들의 헌신이야말로 조합을 움직이는 원동력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완산구와 덕진구에서 점포 1개씩을 선정하여 시설개선 시범 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2년간 25개 점포를 개선할 예정으로 있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골목 슈퍼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끝으로 “골목상권을 지키는 건 혼자서 할 수 없는 싸움이다. 조합원,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있어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합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지다. 하지만 함께 버틴다면 다시 웃을 날이 올 것”이라며, “그날까지 우리 직원들과 조합원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요즈음 골목상권이 무너진다고 누구나 이야기하고 그것이 피부에 와닿고 있는 즈음이다. 다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북 지역의 작은 수퍼에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공급하기 위하여 애쓰는 협동조합이 있어 고맙고 그 중심에는 박춘관 이사장이 있다. /오만호 기자



전북은행, 익산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익산시는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저소득가정 여성 청소년을 위해 보건위생용품 꾸러미 150개를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450만원 상당으로 생리용품 5종과 파우치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청소년 15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물품 전달은 전북은행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 ‘말에게 보내는 선물’의 하나로,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전상익 부행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키워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한을 익산시장은 “여성 청소년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시보건소, 구강보건의 날 행사 캠페인

남원시 보건소(소장 함용재)는 오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남원 공설시장에서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캠페인을 개최한다. 구강보건의 날은 만 6세 전후에 나오는 첫 영구치를 평생 건강하게 관리하는 의미에서 6세의 ‘6’과 어금니(구치:臼齒)의 ‘구(9)자를 숫자화해 매년 6월 9일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80세를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라는 슬로건으로 구강건강이 정신 건강과 행복의 출발점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학교 커피나눔·작은음악회 성료

전북대학교병원이 장기 입원 및 치료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제한된 학생들에게 직업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커피나눔과 작은음악회를 성료했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병원학교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긴 기간 동안의 입원 및 치료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제한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에게도 휴식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 내 호흡기센터와 어린이병원 복도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건강장애학생들의 버리스터 실습을 연계한 커피 나눔 부스에서는 어린이병원학교의 학생들이 직접 버리스터로 나서 커피와 음료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아이들이 환자라는 생각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커피 한 잔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전주교육대학교 루미에트 앙상블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작은음악회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감미로운 현악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교육청 장학관이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며 병원학교가 교육과 치유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김민선 어린이병원학교장은 “이번 행사는 병원학교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높이는 특별한 체험이 됐고, 병원 전체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치료뿐 아니라 정서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병원학교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은 곧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온누리 안은행, 생명나눔전문강사 모집

사단법인 온누리 안은행(이사장 전석진)에서는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생명나눔전문강사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장기기증자 가족 또는 웰다잉 관련 민간지격을 보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생명나눔전문강사는 장기기증과 웰다잉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생명 존중과 나눔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며,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명나눔의 실천을 독려한다. 특히, 장기기증자의 가족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거나 웰다잉 전문가로서 의미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돕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전할 수 있다. 이번 생명나눔전문강사 모집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장기기증자의 가족으로서 생명나눔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이들로, 이들은 자신이 겪었던 과정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타인의 공감과 이해를 돕고,

생명나눔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대상은 웰다잉 관련 민간지격을 보유한 전문가들이다. 웰다잉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생명나눔과 웰다잉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생명나눔이 단순한 기증을 넘어 인간적인 가치 실현의 한 형태임을 알릴 수 있다. 사단법인 온누리 안은행은 생명나눔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생명나눔의 가치를 보다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것이 이번 모집의 핵심 목표다. 생명나눔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교육과 강연을 진행하며, 생명나눔 캠페인 장기기증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온누리 안은행과 협력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동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나눔 운동이 사회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다. /오만호 기자



남원시, 서울 구로구 청소년 초청 문화교류행사

남원시는 지난달 30일부터 1박 2일, 서울시 구로구 청소년들을 초청해 남원 청소년과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우정을 나누는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남원시와 구로구에서 총 30명을 선발해 진행하였으며, 상호 간의 문화 교류를 통해 우정을 다지고 지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로구 청소년들은 첫날 남원에 도착해 청소년수련관에서 환영 행사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 친목을 다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동면 태평교회, 다문화가정 장학금 전달

남원시 산동면 관계지는 관내 태평교회(목사 하승용)가 지난 1일 관내 다문화 가정 자녀 초·중·고생 13명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 내도록 하기 위해 장학금을 각 20만 원씩 총 26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승용 목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인접해 산동면장은 태평교회의 후원에 감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